

깊어가는 가을밤 소설 읽으며 인문학 향기에 젖다

전남대 내일부터 5주간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인문학' 황석영 작가·이미란 교수·이주노 교수 등 초청 강좌

깊어가는 가을밤, 소설을 읽으며 인문학의 정취와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는 11월 1일부터 5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인문대 3호관 소강당에서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인문대학과 대학인문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문학의 향기에 젖어보는 시간이 된다.

프로그램 주제는 '가을밤에 소설을 읽다'. 각각의 강좌는 남북화해 시대 한국문학, 환경과 동물 문학, '아류정전'의 작가 루쉰의 작품세계, 소설 쓰기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첫 번째 강좌(11월 1일)는 황석영 작가가 나서 시민을 만난다. '오래된 정원', '손님' 등 선 굵은 작품으로 분단시대의 아픔을 조명한 황 작가는 '평화시대의 한국문학'을 주제로 강의한다. 통일 문제는 민족의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진지한 자

세로 접근해야 하지만 대체로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황 작가는 통일 담론의 당면한 목적은 평화라는 전제 아래 남북 화해의 시대의 한국문학의 길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8일)는 국민대 영문과 강규한 교수가 '환경, 동물 그리고 아동문학'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강 교수는 생태문화학과 한국문학에 관심이 많아 '위즈위스 시 가르치기와 생태의식의 확장' 등의 논문을 썼다.

세 번째(15일) 강의는 전남대 영문과 나희경 교수가 '롤리타, 에로티시즘으로 위장한 심미주의'를 주제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1899-1977)의 영어소설 '롤리타'를 분석한다. '롤리타'는 유년 시절 죽은 첫 사랑을 잊지 못한 중년 남성이 한 소녀에게 집착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사회적 통념 너머의 탐미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나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이 소설을 심미주의로 규정하고 작품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황석영 작가



이미란 교수



이주노 교수

네 번째(22일) 강좌는 전남대 중문과 이주노 교수가 '루쉰의 삶과 작품 세계'를 주제로 강의한다. 루쉰 전집의 번역을 주도한 한국의 대표적 루쉰 전문가 중 한명인 이 교수는 "누군가에게 루쉰은 젊은 날의 초상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장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교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다잡아 시대와의 불화를 자처했던 루쉰의 삶과 작품세계를 풀어낼 예정이다.

직접 소설을 써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전남대 국문과 이미란 교수는 '소설 한편 써보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소설장작 강의' 등을 출간한 바 있는 이 교수는 소설 쓰기를 통해 치유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 강의를 계기로 소설 한 편을 직접 써볼 것을 권유한다.

수강 사전 신청은 코어사업단 홈페이지(www.jnucore.org) 또는 전화(062-530-4080)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덴마크의 공공도서관 취재를 떠난 지난 7월 초, 뻘뻘한 일정도 짬을 내 들른 곳이 있다. 코펜하겐 뉘하운 운하에 자리한 샤를로텐보르 궁전이다. 한 때 덴마크 왕실 가족이 거주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덴마크왕립 미술아카데미 건물로 '신분'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운하와 17세기 덴마크 건축양식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코펜하겐의 랜드마크다.

하지만 필자가 샤를로텐보르궁전을 찾은 이유는 한 일간지에 실린 '한 장의 작품 사진' 때문이었다. 지난해 6월 중 국의 반체제 작가 아이웨이웨이가 '세계 난민의 날'에 맞춰 궁전의 창문들을 낡은 주황색 구멍조끼 3500개로 덮은

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쓰여진 대형 패널이 시선을 압도했다. 순간, 아이웨이웨이의 주황색 구멍조끼 이미지가 오버랩 됐다.

아니나 다를까, 2018 광주비엔날레 주제전인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에 출품된 '외국인 여러분...' (수퍼플렉스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민족주의와 반이민법을 고발한 작품이다.

전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캄보디아 작가 스베이 사레스(Svay Sareth)의 자전적 조각 작품 '침묵 & 외침' (Silence & Yell)과 영상 작품 '카사바 잎시 수용캠프'가 시선을 붙든다. 특히 유년 시절 크메르 루즈 정권

'비엔날레는 도끼다'

설치미술 '해돋이' (Soleil levant)는 건물과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것이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갈 때 착용했던 구멍조끼들을 수거해 제작했기 때문이다.

샤를로텐보르를 방문하던 날, 유난히 평화로운 뉘하운 운하에 마음을 빼앗겼다. 비록 '그때'의 구멍조끼들은 철거돼 볼 수 없었지만 운하 어디쯤엔 가 난민들의 슬픈 사연이 남아 있는 듯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행방지수 세계 1위의 덴마크에서 가장 불행한 난민의 삶을 고발한 작품이구나. 아이웨이웨이가 수많은 도시 가운데 코펜하겐을 전시장으로 '점한'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외국인 여러분, 제발 우리를 덴마크 사람들하고만 남겨두지 마세요" (Foreigners, please don't leave us along with the Danes).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제3전시실에 들어서자 주

을 피해 난민 캠프 '사이트 2'에서 생활했던 아픈 기억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예술과 인권, 자유에 대한 의미를 새삼 되돌아 보게 한다.

이처럼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난민과 국경 이슈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설치, 미디어 작품들이 유독 많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과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수십 만명의 남미 난민 행렬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엔날레는 뜨거운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

비엔날레가 어느 전시와 다른 점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세상에 대한) 도발적 발언이다. 정체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예술적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건 비엔날레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마치 정제된 사과의 '경계를 깨는' 날카로운 도끼처럼. 비엔날레 폐막일(11월 11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 늦기 전에 현대미술의 향연 속으로 떠날 일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연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구재향)가 52번째 정기연주회를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지난 5월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열린 '프랑스 음악여행'에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 음악여행 II'를 주제로 연주회가 진행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프란시스 풀랑, 가브리엘 포레, 모리스 라벨 등의 음악으로 채워 이곳의 정서와 예술의 깊이를 느끼도록 했다.

목포대에 출강하고 있는 이현주씨가 풀랑의 '피아노를 위한 열다섯 개의 즉흥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파리시립 음악원 전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백경민씨가 포레의 '녹턴'과 '왈츠 카프리스'를 무대에 올린다. 조연미(순천대학교 출강)씨는 라벨의 '쿠플랭의 무덤'을 연주하고 구재향 호남신학대 교수는 뒤티외의 '물결치는 대로' (피아노를 위한 여섯 개의 소품)로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으로 서현일(광주대학교 출강)씨가 라벨의 '라 발스'를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지난 1990년 창단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창립 연주회 이후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창작음악까지 다양한 기획공연을 열고 있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10-6331-68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현일

'장롱 속 악기' 마침내 관객을 만난다

'ACC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 11월 4일 아시아문화전당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를 표어로 내건 'ACC시민오케스트라'가 4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에서 연주회를 연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ACC시민오케스트라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음악에 대한 꿈을 잃어 버린 이들에게 문화전당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단원들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유니버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원태 지휘자의 지도 아래 5개월간 매

주 토요일 연습을 했다.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시민 41명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현악기와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관객을 만난다.

이번 무대는 먼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으로 문을 연 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작품번호 437',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드보르자의 '슬라브 무곡 2번',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피아니스트 문현욱(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이 협연하고 테너 윤병길(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은 카르틸로의 '무정한 마음'을 부르며 호흡을 맞춘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다문화 M오케스트라 대표인 김유정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전석 무료.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내달 23일까지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은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해 모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면 된다.

디지털 사진파일 또는 필름 스캔파일을 제출하면 되고 연령 및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이어야 하며 1인당 1개 작품, 개인 출품만 가능하다.

파일형식은 jpg, jpeg로, 장축 기준 3000픽셀 이상의 해상도여야 한다. 11월 23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gjcf_rainbow@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8, 74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